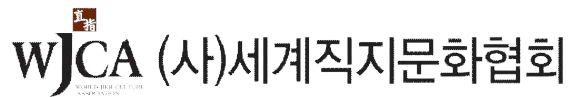




2026년 직지(直指) 전국시낭송대회 - 추천시 62편 -



· 차 례 ·

01. 직지, 혼불	_임준빈 • 01
02. 직지, 귀혼(歸魂)	_임준빈 • 03
03. 쇠북소리에 더 깊어져	_이일규 • 05
04. 직지의 고장, 청주	_장병학 • 07
05. 직지의 꿈	_김희성 • 09
06. 직지 흥덕사	_서인석 • 11
07. 직지, 그대 향한 고백	_안소현 • 13
08. 직지의 울음 받아내며	_윤성해 • 15
09. 오래된 숨	_이 강 • 17
10. 꽃씨의 시간	_이정숙 • 19
* * *	
11. 천년의 온도	_임진순 • 21
12. 나는 아직 기다린다	_전형주 • 23
13. 직지, 자화상	_정기옥 • 25
14. 할머니의 직지	_정순신 • 27
15. 꺼지지 않는 임의 등불입니다	_성낙수 • 29
16. 직지의 향기	_임준빈 • 30
17. 어느 가을날에	_김창영 • 32
18. 직지, 길을 묻는다	_한이나 • 34
19. 직지	_이서희 • 36
20. 직지의 편지	_이미순 • 38
* * *	
21. 흥덕사의 꽃, 직지	_노영숙 • 39
22. 직지 탄생 설화	_김수진 • 41
23. 밤의 탁본	_김영옥 • 43
24. 직지의 기억	_강수화 • 45
25. 직지(直指), 자유에 대하여	_오만환 • 47
26. 당신, 거기 가만히 있어 줄래요	_성낙수 • 49
27. 직지에 빠진다	_김동인 • 51
28. 마음의 조판	_김강인 • 53

29. 쇠물의 증언	_최병규 • 54		56. 직지심경, 그 울림聲	- 박봉철 • 099
30. 보라, 이것이 직지나라	_최효림 • 55		57. 우주를 깨운 직지	- 박용섭 • 101
*	*		58. 직지, 불에서 숨을 얻다	- 성백광 • 102
31. 직지(直指) 그대 향한 사모	_임준빈 • 57		59. 침묵의 문장	- 이영미 • 104
32. 그리워 그리워서 읊니다	_권오중 • 59		60. 직지, 철의 영혼 깨어나다	- 장동휘 • 106
33. 직지, 리진(李眞)에 대하여	_임준빈 • 61		*	*
34. 직지, 망향가(望鄉歌)	_임준빈 • 63		61. 달빛 속에 머문 직지	- 진장명 • 107
35. 하이얀 벚꽃세상	_장병학 • 65		62. 직지의 혼	- 임준빈 • 109
36. 섬광의 꽃사슴	_장병학 • 67			
37. 직지의 노래	_이혜정 • 69			
38. 흥덕사	_임진이 • 70			
39. 직지의 본향 청주	_이양우 • 71			
40. 직지, 날다	_박기준 • 73			
*	*			
41. 양병산 소고(小考)	_김영배 • 75			
42. 직지의 노래	_이영미 • 78			
43. 직지, 글빛을 고르다	_최형만 • 79			
44. 첫 활자의 탄생	_이혜경 • 80			
45. 직지를 알리는 그대여!	_도선희 • 81			
46. 직지, 시간의 문을 열다	_강창호 • 83			
47. 직지, 불심을 새기다	_유지호 • 85			
48. 흥덕사에 피는 꽃	_정연숙 • 86			
49. 직지 하권	_최병희 • 87			
50. 가을, 흥덕사에 머물다	_금성윤 • 89			
*	*			
51. 직지라는 별	_김영옥 • 90			
52. [발신: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 박병선을 기억하며	_박장흥 • 92			
53. 뜨거운 활자	_길덕호 • 94			
54. 나는 활자가 되고 싶었다	_송혜림 • 95			
55. 직지 자음을 굶는 바람	-권괴순 • 97			

1. 직지, 혼불

임 준 빈

달빛 흐르다 멎은 듯
감물 찬 당신의 고요는
떠나간 그 자리가 못내 아쉬워
흐느낍니다.

들리시나요
고요를 흔들다 못해
자취를 감춘
흥덕사 풍경소리는
바람 몰아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아예 자태를 숨겼습니다.

그 숨결 간 데 없고
지금은 거센 솔바람이 뒤덮다가
봄을 맞은 산 목련꽃 향기가
당신의 체취로 휘돌다 갑니다.

향기로움도 사치스러운
당신의 겸손은 뽀냄도 명성도 이미 접어
금속활자 속에 배어 있는 아릿한 혼이
막역한 활자장 곤장 속에 번진
매운 매처럼 아립니다.

혼불이시여!
민족애로 불타는 고국이시여!
당신은 지금
이름 없는 이름으로
어디에 계신답니까

프랑스 하늘에
흐린 날 먹구름으로 일렁이다
본향의 향수로 청아함 떨치신 그리움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유리창을 수없이 두드렸을
울분과 분노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천 번을 그리고 만 번을
불러도 불러 봐도
응답 없는 말 없는 자의 말

눈감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생각나는
당신은 당신은
기필코 꺼지지 않는
혼의 등불입니다.

2. 직지, 귀혼(歸魂)

임 준 빈

별이 별을 쓰다듬는 밤
야원 달은 길을 나서지 못했으리라.

스스로의 그림자를 피워선 지고
차마 잠재우지 못했으리라.

아스라한 역사, 슬픈 계곡을 열고
눈물 같은 강 하나 내어 유유히 흘렀으리.

으깬 천년의 벽 가시덤불로 둘러쳤으리.
범람의 별들은 새벽을 찢는 닭 울음처럼
깨치는 그 날을 연민했으리라.

젖은 상념들
그리움의 숲에 묻어놓고
천륜을 기다리는 나무가 되었으리니.

아득한 고국, 하루가 천년
아린 생강처럼 보고 싶을 때마다
밤하늘에 심은 별들이
속절없는 나무 한 그루로 자라
울울창창 아우성쳤으리라.

죽음보다 더 그리워한 사람들
달빛 바라보며 외치던 쉼 없는 함성들
여기인들 그곳이 없었겠는가?
거기인들 이곳이 없었겠는가!

지금은 까만 밤
먼 하늘 프랑스 국립도서관 유리창을 깨뜨리며
내리붓는 그리움 흥건한 그 달빛
서로를 바라보는 애절한 눈동자엔
귀혼의 꿈, 별처럼 영롱하다.

고국이여!
침묵의 민족이여!!
나 여기 한 줌의 재로 시든 별 되어
직지의 혼 밝히는 야속한 밤에
흔불은 정처 없이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햇불처럼 이르노니.

우리 서로 눈물 같이 그리울 땐
하나밖에 없는
저 달을 바라보기로 하자.

가령, 어느 하늘 비탈 아래
별이 별을 만나 부서질지라도
달이 달을 만나 눈부실지라도.

3. 쇠북소리에 더 깊어져

이 일 규

청주읍성 북서쪽
五里 바깥에 있는 양병산(養兵山) 단풍이
가을마다 붉게 타오르는 것은
옛 병사들의 함성 때문일까

옛날에는
굽이굽이 휘어 도는
무심천 변 운천(雲泉)사지로
부처님 미소 같은 새벽안개 번져올 때

신라 옛 절의 수막새 아래서
청동 종 울음소리에 누구나
불심에 젖었을
테지만

연당사지 사뇌사지
허물어진 터에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저런 이유로 단풍잎처럼
불심에 젖었을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폐사지 패랭이꽃처럼 사는 사람들은
쉽게 물드는 것이라고
그냥 가슴에 그렇게 묻지

청동으로 만든 쇠북(金鼓)
공양 시간 알리는 전음을 끝낸 후
흥덕사 처마 끝에 걸릴 때

연당마을 연꽃 바람 먼저 달려와
금구에 머리 부딪는
춘척의 순간!

연꽃무늬에 구름 테두리 바깥으로
한 뼘 넘게 열어둔 소리 나가는 길로
연꽃 향기- 따라
'서원부 흥덕사(西原府 興德寺)'
음각 글자 흩어지는
순간!

새벽 돌고개 넘어 소쟁이 밭으로 가는
폐사지 농투성이는 흙 속에
손발 담그고 불심으로
가슴 찔렀을 거야

연꽃향기 묻은 쇠북소리에
더 깊어져 쇠물 붓는
주자소 주자공(鑄字工)들은 손과 발
어깨 먼저 깨우고
가슴 찔렀을 거야

앗!
늦은 저녁
흥덕사 이름 적혀 있는
청동 발우를 들고
스님들 어디로 가시나
청주목 밖 흥덕사
석찬과 달잠 스님은 성미도
급해라

벌써 금속활자 가슴에
먹물 적시고 있네

4. 직지의 고장, 청주

장 병 학

솔향기 뿜어내는 흥덕사지
여운 따라 굽이치는 산 너울
민족의 혼 불사른 백운화상의 얼
장인(匠人)의 피땀 빚어낸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사람의 마음 바로 보라는
부처님 뜻 깨달게 하는 직지
계송(偈頌)에 젖은 연빛 자비심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실남실.

불박이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며
심오한 고뇌 속에 쇠붙이 녹여 혼신 다한
기록문화의 도시 직지의 고장, 청주
문화창조의 뿌리 직지의 본향, 청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올이 등재된
금빛 직지 꽃피운 찬란한 직지꽃
지구촌 종말이 오는 그날이 온다 해도
직지꽃 향기만은 화알활 불타오르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그리움 넘치도록 훌쩍이는
'직지심체요절' 형제 중 하권
직지 상권은 어디메쯤 잠자고 있을까? (연 계속)

부름에 화답 없는 통한의 노래여.

심오한 선(禪)의 요체 깨달아
한아름씩 뿜어내는 직지의 혼
깨치고 일깨우며 눈물로 손짓하는
남북한 민족 화합의 직지 찾기 운동
설운의 봇물 터지듯 내리 붓는다.

고고하게 틀어 얹은 고인쇄박물관
불심으로 거듭나 새롭게 복원 된
고려의 옛터 흥덕사지 금당
정성어린 직지풍경은 간 곳 없고
고려의 금속활자 영혼만이 휘영청
애잔한 직지물결도 떠나질 못하네.

마알간 서편 하늘가 해질녘,
올곧은 삶 줄줄이 붓질하며
직지마음에 녹아내린 무심천의 으악새들
비움의 나래 퍼듯 출렁이는 은물결
노을빛 무심(無心)만이 깊어만 가는구나.

5. 직지의 꿈

김 희 성

우리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버려진 암자에 천리마를 탄 이가 찾아왔을 때
생의 기록과 환영하듯 감기던 울음
그 견고함이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
직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눈물로 밤을 견뎠습니다.
초록의 숨들로 큰 숲을 피우기 위해 모의하던 이들
손아귀에 깃든 탄생의 기쁨과
수많은 발자국이 직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숨이 되고 살이 되고
달게 여문 생이 되었던 나날들
완결을 이뤄내기 위한 시간들
꿈이 교차하던 밤은 싹틔줄도 푸르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간절해졌습니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 밖에 잠시 내려둔 꿈을 기억하기까지
환고와 환영의 시간들이
직지를 빚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지가 기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듯 함께한 떨림들이 마음속을 왕래하면
우리는 푸르러 직지의 한 생이 될 것입니다.
틈 사이에 드리운 숨 같은 말
우리는 서로의 문장을 열거하며
긴 마당을 만들어갔습니다.

밤을 자라게 하는 건
제 몸을 빛내는 유성들이라며
직지는 세상을 기록하는
한 곳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6. 직지 홍덕사

서 인 석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 귓전에 들려온다.
홍덕사 산자락을 깨우듯,
다시 태어난 직지심체요절이여!
늦은 밤 호롱불 불 밝히고
빠알간 숲딩이에 금속활자 꽃이 피니
새로운 활자가 화사하게 피어나듯,
청주 홍덕사에 꽃이 아름답리 피었구나.

똑딱똑딱 나무망치 두드리는 소리,
씻물 붓는 소리, 활자 다듬기 소리,
조판 위에 하나하나 새겨진 너의 모습이
무심천 물속에서 아이들 첨병대는 소리처럼
청아하고 아름답게 들려온다.

아~ 고려 말 고려인들이여!
풀잎 위 발자국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왔는가?
양병산 붉은 너울이 가슴으로 밀려와
온 산의 울림을 주는 장엄한 종소리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구나.

침략 받고 불타고 인고로 퇴운 처절한 역사귀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잎이 돋고
청산을 돌고 돌아서 청주 홍덕사 금속활자본이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되어
물 좋고 산 좋은 곳, 청주 홍덕사 자랑이니
한발들에 내려앉아 문명의 목적을 향유하듯,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되었구나.

7. 직지, 그대 향한 고백

안 소 현

천상에 걸린 초승달마저
그리움의 살이 돌아 커져만 가는데
그토록 눈부신데
심연의 깊은 곳
오장의 뿌리 끝에서 밀어올리는
그대 향한 몸부림인데
한 번도 눈길 주지 않는
그대는 누구신가요

꿈속에서나 당신을 만져보기 위해
입 맞추기 위해
밤새도록 식은땀에 범벅이 된 지도 오래되었건만
140억 개의 신경세포를 마비시켜
이젠 몸져누워야만 하는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야속한 님이시여!

속절없이 속절없이 세월만 가고
흔들리는 나뭇가지 뒤돌아보지 않는 새처럼
흠쩍 떠나간 지 어언 백여년.
그런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다
쏟아낸 나의 눈물은
강이랄까 바다랄까.

흥덕사지 빈들에 앉아
솔밭 사이 백운화상 혼으로 울어대는 산새 소리
철당간에 다진 계송의 말씀
무심천에 씻은 그 마음 모아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해후의 그 날까지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노을이 타는 저녁
жат은 별들도 모두 숨을 죽인 젖은 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눈물 꽃 우거진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8. 직지의 울음 받아내며

윤 성 해

이름만 들어도 뿌듯한 금속활자본 직지
불멸의 이름을 얻고도
이국땅에서 우는
애절한 울음을 받아내려고
온종일 주자소에 머무릅니다.

두께와 크기에 맞게 글자본을 양각하고
판형자본 붙인 어미자에
주물토를 채웁니다.

밀랍을 녹여내고 쇳물이 굳으면
가지 쇠에 달린
활자를 떼어내어 배열하여
조판의 수평을 잡아 놓고
유연먹을 골고루 칠하고
한지에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내 가슴 조여오는 울음소리 찾아잡니다
지금 감옥 같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위풍당당이 걸어나오는 직지의 울림이
행간을 뚫고 나와 나를 사로잡습니다.

마냥 직지에 매료되어
주자소에서 보내는 이 작은 노력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빛장을 푸는 *(연 계속)*

마침맞은 열쇠라고 믿고
직지 반환의 길에 동참하렵니다.

- *주자소-활자의 주조를 관장하던 관서.
- *어미자-한지에 글을 써서 나무에 새긴 완성된 글자
- *판형자본-한지로 글을 써서 나무판에 붙인 글자
- *유연먹-기름먹

9. 오래된 숨

이 강

손끝으로

툭 튀어나온 글자를 쓰다듬자

오래된 숨을 토해내요

나는 안녕, 하고 웃어요

먼지가 폴폴 날리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책꽂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귀귀한 책 내음에 푹 빠져 일하던

한 사서의 손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왔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에서

터질 듯 쪼그려 있었대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고향 사람이 말을 걸었대요

나는 헤아려보아요

먹이 묻은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스쳤는지

손끝에 간신히 잡히는 금속활자 하나가

오래된 숨을 뱉어내요

나는 그 숨을 따라 거닐어요.

한 번 들이쉬면 글자들이 옷을 입고

글자들이 춤을 춰요

흥겨운 춤사위 속에 온 우주가 스며들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가득 담은 그릇이 되어요

반짝이는 별과 굴러가는 빛,

흘러가는 물

푸른 산과 작은 사람의 이야기가

종이 위에 새겨져요

우주의 오묘한 맛이 눈가에 아른거려요

혹,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걷어내고

직지를 펼쳐보아요

뿌연 악(惡)의 기운을 털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이제 미래의 숨을 쉬어요

선한 숨을 쉬어요.

10. 꽃씨의 시간

이 정 숙

도가니 속 꽃불은
무심천 녹일 봄소식이었을 거야
너의 웅알이 아지랑이 속 떠돌고
보춘화 향기 날아들 무렵
구리와 주석
합방 이루노라 만든 열기
흥덕사지에 깔렸을거야.

어느 구석자리 각자장 손길
조각칼 마술로 매끈한 글자 치켜들면
밀랍틀 만드는 금속활자장 시선 번득거렸을거야
암수의 틀 짜 맞추는 주조장 눈엔
불꽃 피워낼 순간 희뵈하게 밝아 왔겠지.
장인의 혼 오롯이 녹아든 쇠물가지
쟁쟁 고려 땅에 올렸을 거야

모래 속 뜨거운 꽃 고개 내밀 때면
천년 먹여 살릴 민족 정기에
데지 않게 조심해야 해
봐, 봐
당간지주 당찬 기운 흥덕사 되살리고 있지
고이 간직된 치미
기와지붕 높이 걸리는 건
꽃 향기 퍼뜨리란 신호잖아

무심천 따라 회귀할거야, 직지
장인 본향 잊힐 리 없어
꽃송어리 목 길게 빼고 엄마 소식 기다리는데
모래 본능 필연의 기억
되살려 내고 말거야.

*각자장-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각자의 제작기능을 가진 장인
*주조장-활자를 주조하는 장인
*치미-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

11. 천년의 온도

임진순

누가 알까
시간을 건너는 온도를

하권만 남겨진 책 하나 있다
장과 장 사이를 펼치는 순간
오랜 시간 감았던 눈 뜨듯
빛으로 팽창되고 있었다.
빛이란 긴 시간 어둠을 뚫고 오는 것이어서
넘겨지는 페이지마다
최초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고려의 체온이었다

아비는 늘 폭염속 장작을 지폈다
천이백도 이상 달궈지는 불 앞을 지켜야했다
몸속 남아 있는 한 방울까지 쥐어짜며
휘어진 등이 바삭바삭 말라가고 있었다
당신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으로
씻물을 만드는 중이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떨어지는 씻물을
겨울 햇살 떨어지듯 바라보고 있었다.
한 자씩 살아나는 한지의 심장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당신의 심장에도 혈이 돌았을까

작은 반딧불이를
살아있는 빛이라 말하듯
빛의 한 별을 직지라 부르고 있었다

맥박이 희미한 흥덕사에
살랑이는 금빛 나비 날아왔다

당신의 온도가 시간을 건너고 있다.

12. 나는 아직 기다린다

전 형 주

먼 여행 끝에 정착한 곳이지만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다.
한때는 콜랭드 플랑시의 집에
또 한때는 중국의 낡은 문서들 틈에
내 존재를 잊고 조용히 묻혀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익숙한 얼굴은 찾아볼 수 없다.
인자한 표정 진지한 눈빛으로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마주보던
청주시 흥덕사의 스님들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들
아주 오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의 산과 들이 그립다

내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이제 나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여러 사람들과 눈을 맞대고 인사한다.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나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러나 누구도 헤아리지 않는다
나의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그러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돌아가려는 희망은 사라지지 않음을
나는 아직 기다린다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조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그 날을

13. 직지, 자화상

정 기 옥

숲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
눕기도 하고 그늘에 젖어
별들과 햇살에 몸을 맡겨
함께 울창해야 하건만
그렇지 않아 외롭습니다.

이국의 밤은 깊어가고
별들의 재롱도 꺼져가는데
달빛마저 등진 처사
서러워 서러워 우웁니다.

바다를 외로이 지키는 등대
먼바다의 무인도처럼
홀로 정겹습니다.
본향 땅. 봄이 오면
꽃 무리 지던 꽃 숲에
두고 온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립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끼리
그리운 사람은 그리운 사람끼리
성그는 밤하늘
고국이 그리워도 별처럼 멀고
무심천은 보이지 않아도 (연 계속)

항시 마음 안에 출렁이듯
제 얼굴에 비친 제 모습이
바람 없이 울어대는 풍경인 양
쓸쓸합니다.

선생님 없는 교실을 혼자 지키며
어릴 적, 노을에 눈시울 적시던
불이 고운 가녀린 소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해질녘 측은 듯이 앉아
그쪽 향해, 턱 권
직지 닮은 아이입니다.

마음 둘 곳 없어
수 없이 별을 헤던
천년의 긴 세월
흔들림만큼 뿌리를 뺏는 나무들처럼
그날을 향한 그리움만큼
질박의 소망은 커져만 갑니다.

직지, 나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기도로 태어난 감람나무
뿌리 끝에서 영혼까지 타버린
나목입니다.

14. 할머니의 직지

정 순 신

할머니
지난 여름
흥덕사에 다녀온 것이
할머니를 배운 마지막 여행이 되었어요

할머닌 활자를 만드는 것이
꼭 음식 만드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사람 위하는 건 다 마찬가지로

아버자와 어미자가 거푸집에서
글자를 낳는 것이
사람 사는 일과 다름없다 하셨지요
사람이 자식을 맹그는 건
이 땅에 자기를 냉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 시상을 아름답게 맹글기 위한 거라 하셨지요

直指(직지)
저 글자가 무언지는 몰라도
차가운 쇠덩이에 뜨거움을 보태어
세상에 빛을 주고 있다 하셨지요
검은 쇠가 반짝반짝 빛나는 건
사람들의 크디큰 염원이 담긴 까닭이라고도 하셨고요

할머닌
글자 맹그는 저니들에게 (연 계속)

냉수라도 한 잔 건네주고 싶다 하셨지요
세상 살문서
가슴 한켠에 쌓이고 묵힌
먹먹한 가슴, 사태 같은 분노, 화산 같은 울분을
세상 밝히는 글자로 끄집어내는
용암처럼 터질 것 같은 그 가슴
눈물조차 말랐을 테니
냉수라도 한 대접 건네어 담금질해주고 싶다 하셨지요

살아가는 일은
가슴마다 맺힌 응어리를 쇠물로 녹여
저마다 제 글자 지어내고
닿아지도록 닦아내어
그래서 환한 세상 맹그는 거라 하셨지요

할머닌 아무것도 모른다셨지만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셨어요

할머니
여기에 오면 할머니의 미소가 보여요
가끔 삶이 어두워질 때면
내 마음의 글자 닦으러
올게요

15. 꺼지지 않는 임의 등불입니다

성낙수

오래 전, 성안길 비껴 흐르는 무심천
잔잔한 물결 거슬러
몸에 배인 창조의 태생으로 수많은 시간 흘러 빚어
정 깊게 좋은 임의 등불입니다.

격하게 타오르는 불길 이겨 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태어나
굳게 엮어 자리 마주해 청주 흥덕사의 직지로 불리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임의 등불입니다.

신명나게 감동 주어
안타깝도록 소중한 팬스레 눈물로
수만 번 불러 지겹지 않은
깨알 같이 소중한 기쁨으로
골 물길로 흘러 욕심 없는 달빛처럼
소중한 임의 등불입니다.

따사한 임의 눈빛에 격하게 반하여
임의 잔잔한 목소리에 빠져
세상 어디에 비취지 않는 곳 없이
모두를 위해 꺼지지 않아 막중한
임의 등불입니다.

16. 직지의 향기

임준빈

불두화 피고 지는 흥덕사지 산기슭
솔바람 타고 나부끼는 직지의 향기
돌탑을 돌고 돌아 어디로 가는가.

이국땅 멀고 멀어 지친 하늘에
물별들만 까마득히 가슴으로 울고
산 넘고 바다 건너 그 언제나 가야 할꼬.

지친 마음 게워 흐르는 무심천
발심의 소망 모아 담그었더니
맑은 물에 씻어놓은 듯
노을빛은 그 위로 휘돌아 가네.

어이야
멀디면 그곳에 있는 그대여
들리는가, 이 애절한 우리의 노래가.

디이야
없는 듯 존재하는 그대 녀
만질 듯 멀어지는 그대 그리움.

바람에게 물어볼까?
까만 밤, 별들에 손짓할까!
그대 혼불로 새벽을 깨치는 여기는,
여기는 무심의 분향.

우리 해후의 그날엔
아무 말도 묻지 않기로 해요
원망도 후회도 허물도 덮어주기로 해요.

힘을 내요 일어나세요
어서 눈물을 거뒀요
우리에게 희망만 있을 테니까.
천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별처럼
모든 걸 내어주고 받아주는 바다처럼.

세계의 보물 직지(直指)여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라 하였거늘
우리들의 소원 들어주소서
그 소망 이루어지게 하소서.

17. 어느 가을날에

김 창 영

참으로 슬픔을 사랑하는 까닭에
진실 하나에 별 하나를 췌다.
진실로 기다림을 아는 아이라서
들풀에 짓는 이슬처럼
그대에게 안긴다.

무형물의 유형
고향 없는 사람의
봄 잔치 살구꽃이여
아아, 무심천의 벚꽃이여
그 마을에 꽃지는 저녁
노을도 슬퍼서 몸져누우리.

진실로 진실로 세상이 반겨서
꽃은 피는가
가령,
세상 끝이 어두워서 꽃은 꽃잎을 떨구는가.

직지꽃
이름 없는 이름에
누구는 환한 달빛이 되고
누구는 서러워 눈물을 단다.

“나는 숭고한 나라의
가난한 꽃 한 송이”

어느 늦가을날이었다
홀로 해변을 걷는데
새벽녘에 내린 이슬에
얼굴을 푹 가린 들국화가
칭얼대듯 아는 척을 한다.

“내게도 고향이 있느냐고
민족이 낳은 부모가 있는거냐고”
푸념 어린 한마디에,

찬 바닷바람이 달래려
흥덕사 풍경처럼 젖은 음성으로
그의 가슴에 안기어 흐느끼고 있다.

직지, 한민족의 혼
추녀 밑을 휘돌아 와
풍경이 전해주는 편지라면서
활자에 박힌 계송의 글씨
사랑, 용서, 상생
뚝방뚝방 읽어나가고 있었다.

18. 직지, 길을 묻는다

한 이 나

직지심경은
오래된 유적 마음의 길이다.

청주 나들목에서
강서동 반송교까지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고향을 내달릴 때 가벼운 마음이 한 걸음이다.

철당간을 지나
무심천을 건너
구부러진 골목과 산책로를 휘돌아가면
고려의 직지에 닿을까, 흥덕사에서 찍어낸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칠백년의 숨결을 맡을 수 있을까

글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길 속에 길을 찾는다.

고인쇄박물관에 와서, 복원된
직지에게 세상의 길을 묻다
종이를, 쇠와 불을, 먹을 다루던 조상의 엄한 손길
글자 한자 틀릴 때마다
마음 졸이며 혹독했을 정신의 치열함을 읽는다.

누대로 전해진 어둠 속 불빛
심법을 만난다.

사람의 마음을 맑고 바르게 보면 얻어질
마음공부를 되뇌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흰하다
직지의 슬픔과 자랑이
무심천 가득히 운슬로 반짝인다.

19. 직지

이 서 희

쇠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뜨겁게 태어났으나
두드러지고 식혀지면 그 뿐
다른 것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면서
쇠는 자신은 그렇게만 사는지 알았다

뜨겁게 태어나
다시 두드러지고 식혀질 때
쇠는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들이
새겨진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정성으로 새겨진 이름들을
종이 위에 찍어보며 쇠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쇠는 종이를 사랑했고
그 종이를 넘기는 손들을 사랑했으며
자신이 만든 것을 보는 반짝거리는 눈과
넓어지는 세계에 황홀해했다

하나하나의 글자들은
종이 위에 피어나는 꽃이었고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며
퍼져나가는 향기였다

쇠는 꿈을 꾸다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며
향기로 가득찬 세상을 꿈꾸다
그러면 자꾸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20. 직지의 편지

이 미 순

책을 열면
금빛 뜨거운 쇠물소리가 들린다.
검은 먹물로 온몸을 물들이고 활자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볼 때까지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보라고 이야기하는 듯
오래, 아주 오랜 시간 가부좌를 틀고 있다.

직지는 백운화상의 애타는 가슴 품고
나를 찾아오라고, 찾아달라고 손짓하는데
먼 이국의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직지심체요절.
고향 청주 흥덕사 돌담에 앉아
부레옥잠 부푸는 소리 들으며 탑을 도는 꿈을 꾸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솔바람이 사랑살랑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듣는다.

햇살을 똑바로 줄 세우는 기와지붕
고려의 햇살도 저처럼 올곧게 서 있었겠지.
한 별의 책자를 완성할 때마다
고인쇄박물관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여러 사람의 땀으로 찍히는 한 페이지

그리운 페이지에 프랑스 우표 붙은
직지의 편지를 끼우며 합장하듯

나는 책을 덮는다.

21. 흥덕사의 꽃, 직지

노 영 숙

고려 475년 한반도를 감싸안은
아취와 기상으로
천년의 바람타고 하늘에 가득하다.

고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가부좌틀고
우주, 자연, 진리를 깨달은 지 100여년
찰라의 “할” 고함에 긴 숨 쉬어본다.

청주목 흥덕사에 석찬과 달잠이
차가운 금속덩이에 생명을 부여
고동 소리 지축을 흔들고
가는 동자꽃 영롱한 지혜는
고려인만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다.

무심으로 흐르는 물줄기 따라
참선하여 마음을 직지할 때
백운 아래 기나긴 눈바람에도
우뚝 선 우암산 정기는 늘 푸르고
묘덕의 널리 베풀 보시는
돌고 돌아 불꽃으로 타오른다.

아직도

맑은 바람과 흰구름 친구 삼아
잃어버린 빛바랜 화두 한 쪽 찾으려는
직지인의 자긍심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열정의 불 지피는
고려 황제의 꽃 중의 꽃이다.

22. 직지 탄생 설화

김 수 진

노송은 매일밤 꿈을 꾸었다.
미동조차 없던 밤, 망망대해를 떠돌던 활자들의 행렬
활자들이 흥덕사의 지붕 위에 앉은 날
바람은 꿈쩍을 하지 않고
노송은 발자취를 따라 시경(詩經)을 읽었다.
누군가는 그 형상이 마치 불경을 읊는 수도승 같다고 했다.
획과 획 사이에서 우주를 뒤흔들며
별자리의 흔적을 밟다보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죄다 밤 뒤의 아침이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푸른 숨을 뱉었다
춤추길 오래 그것이 움직임이
그리운 누군가에게 남기는 편지 같을 때
직지는 목마른 기억 속에서 태어났다.
바람은 동전 한 닢 입에 쥐듯
무언의 뿌리를 활자로 새겼다.

계절은 비워내도 피어나며 내리사랑 하였지
숲속을 떠돌던 길손들도 아름다운 계절에 안식을 누리던 해
직지는 그렇게 긴 시간을 깨었다.

사방에 배열된 작은 소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연습은 여전히 쉽지 않고
노송은 제 몸 곳곳에 별의 뿌리를 수록했다
깊은 밤 시작된 위대한 파동에 (연 계속)

아웅다웅 모질게 울던 생들
직지는 감탄하듯 바람을 고이 접으며
방대한 역사를 풀어낸다.
어둠을 씻어내던 고촉(高燭)의 전등
최초의 불빛은 오래도록 별이 되어
이내 천년의 하늘도 환하게 꽃피웠다.

23. 밤의 탁본

김 영 옥

밤의 문선공이 황금빛 낮의 들판에서
날알의 자음과 모음을 타작하고 있다.
만추의 논틀밭뜰에서 별의 활자들을 골라내고 있다.

밤의 식자공이 가을 별자리를 짜맞추고 있다.
기둥 하나 세울 터도 없는 허공에서
폐가수스 사각형의 아귀를 망치로 두드리고 있다.

밤하늘 드넓은 먹지 위에 울룩볼룩
피어나는 연꽃의 화두(火斗)

폐사지의 거푸집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빛나는 흥덕사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올려다보라!

백운화상이 심어놓은 부처님 말씀
그 뿌리에도 바람이 들어
뜬구름 떠받든 불당의 처마 밑으로
금박 두른 사족까지 거느렸으나

모든 백지의 본문은 이미 완성본이라
요사체의 가로세로 띠살문에
칸칸이 채워놓은 불립문자.

은하수에 시리도록 담금질한 눈빛만이
그 금속성의 필체를 알아보나니

평생 쌀 한 톨에 좌석을 새긴
어느 눈 먼 필경사
굽은 손가락이 진짜 직지라!

밤의 인쇄공이 천체의 윤전기를 밤새도록 돌리고 있다
윤장대를 굴리며 기도하는 까막눈 어미의 마음으로
하얀 새벽을 출력하고 있다.

24. 직지의 기억

강 수 화

오래된 북소리가 안개 속에서 운다

바람은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고
차가운 칼날은
새파랗게 반사되고
노기에 왜적을 마주한
당신의 투명한 눈동자는
날선 소름이 된다

깃발이 펄럭이자 멀리서
빈 가슴 졸이는 늙은 노모가
어둠을 응시한다.
당신의 이름의 운(雲)이 갈아
흐르는 시간에 멈추어
박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엷히고설킨 것들을 끊자
물길은 구불거리며 흘러가고
번지는 그리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증일거렸다

당신은 머물고 있다

얼어붙은 시간속을 녹여
흥덕사 올라가는 길
나무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의 길이 열려
한 획이 백성이 되고
한 획이 부처의 넓은 자비 되어
녹아있는 언어 하나가 되었다

스님과 살고 있는 직지
가끔은 웅이진 손으로 다가오는
다정한 속삭임에 웅크린 몸을 뒤집자

직지의 꿈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쓰다듬는 손길마다 스며드는 언어들
별처럼 빛나고 있다.
직지는 혼을 담아 정교한 틀 속에 일렬로 서서
수군거린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천년 시간 속 직지가 피어난다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기억하며 가슴에 새긴

25. 직지(直指), 자유에 대하여

오 만 환

남들은 한없이 편해지는 것을 자유라 한다.
구속의 반대라 한다.

그러나 산비탈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라
바람과 천둥, 그리고 비와 눈발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얻어지는 삶의 향기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별처럼
거센 파도 에둘러 굴복하는 파도꽃처럼
자유는 전쟁 같은 슬픔을 사랑한 속죄.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없다.
이미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모습을 감추었다.
다만 그들이 누리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어느 한켠에서는
그 기쁨을 위해 눈물 흘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거듭 말하고 싶다.
자유는 또한
그 자체, 자유로움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진실도.
나는 그 자유를 버린 지 오래다
나는 그 자유를 획득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 문헌실
오랜 세월은
가장 향기로운 자유였는지 모른다.

뿌리친 그 자유를
고국은 나를 진정토록 지켜주려고 한다.
민족은 나를 뼈의 흔처럼 인식시키려 한다.
내가 사랑한, 내가 그래도 의지했던 그곳에서……

하지만 지금은 이국의 땅,
어쩌면 신실한 신이 선물한
별과 나는 천년지기 무심(無心)의 삶이여.

언젠가 하얀 등이
버려도 화등처럼 켜질 것이다!

26. 당신, 거기 가만히 있어 줄래요

성 낙 수

당신, 거기 가만히 있어 줄래요.
수백 년 고된 세월 참아 이겨 남긴
위대한 불멸의 이름자인 직지여,
흥덕사 직지여, 청주 흥덕사 직지여.

고운 노래 위해 속을 채우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은 성품으로 한 올 한 올 풍경 소리 엮어
탄생한 직지여, 불멸의 사랑이여, 영원한 임이여.

화룻가에 둘러앉아 나누던 정겨운 이야기로
당신, 거기 가만히 있어 줄래요.
제가 다가가서 감히 당신의 탄생을 위해
다 바쳐 고생한 스님들의 소중한 이름자
큰소리로 찾아 드릴게요.

눈썹 짙은 경한 스님, 눈매 고운 묘덕 스님,
눈빛 매서운 석찬 스님, 잔잔한 미소의 달잠 스님
이제 떠나지 마세요.

오늘, 내일, 모래
쉽 없이 정이 물린 목소리로 불러 드릴게요.

오랜 시간 한숨 없는 애환과
고민 섞인 흥덕사 안 터 정원과
뒤란에 풀꽃으로 남아 있도록
당신 거기 가만히 있어 줄래요.

위대한 불멸의 이름자인 직지여,
흥덕사 직지여, 청주 흥덕사 직지여.

27. 직지에 빠지다

김 동 인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수런수런 가을비의 속삭임이 돋았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혈맥을 휘도는 박동이 덜컥 덜컥 감겨왔다

즈믄날 빛은 달빛과
외길 따라온 바람을 한 데 섞어
정수리에 붓고는
글자에 갇히지 않도록 가지쇠를 들어내
몽텅 몽텅 불거져 오른 어머니의 얼굴들이
내게 훑 달려들었다
생각도 글자도 돌에 새겼으니 돌일 뿐이라고
다만 세상에 널리 나누고 싶어

돌을 깨고 나와야 했다고
고즈넉한 숨결로 빛이 나고 있었다

그 앞에 서면
나도 심지를 세우고
바람을 꺾고 생각을 걸어 내고
모서리 난 마음 잘 다듬어
둥글어지고 싶다 (연 계속)

빛살 하나로 폐부를 찌르는
활자를 한 자 한 자 꺾어 눌러
가슴에 쓴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28. 마음의 조판

김 강 인

마음에 조판이 필요한 날이면 직지를 생각한다

새털구름이 서툰 가로획으로 하늘을 덮은 저녁

흥덕사 뜰에 고요가 날개를 접는다

골똥히 고개 숙인 별꽃아재비는

흰 꽃잎마다 글자의 기억을 품고 있을까

박새들이 오래된 글자처럼 뜰을 종종대고

바람은 내내

돌아오지 않은 구절들을 기다리며 서성인다

밀랍에 조각칼로 가로획 세로획 새길 때

노을이 쇠물처럼 그 자리를 채웠을 것이다

이르게 뜬 별들이 순한 입술을 빛내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밤늦도록 소곤거렸던 먼 옛날

하늘은 사람의 마음처럼 돌고 또 돌아

같은 자리에 멈추고

나는 고개를 들어 별들의 군락을 바라본다

삼라만상이 하나하나 마음의 거푸집이다

이 조판을 마치면

나도 마른 등성이의 소나무처럼

한 꺼풀 벗고 단단해질 것이다

29. 쇠물의 증언

최 병 규

토층의 눈물로 고였던 고대 콩알 같기도 하고

어쩌면 태초의 용암덩이의 파편 같기도 한

암울하던 그 층계에서 풍우로 스민 빗물로

겨우 연명해 온 선대의 체온들이 온기로 살아있다

용암지대에나 녹아 있을 법한 철기들의 언어

억겁을 두고 행성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처럼

통점이 도졌을 암울한 시대를 걸어 왔다

흥덕사지터에 비바람으로 쓸려간 자국과

고생대에 묻혀간 흔적처럼 어둠만 걸어 다녔다

불가의 반야심경마저 녹여내는 쇠물의 흔적을

콩알만한 불경의 토씨들에게 울먹이던 전설처럼

부처의 살점을 깎아내는 눈물대신 흘렸을 쇠물

그 통점의 비화로 맺혀있던 토층의 언어들이다

솔바람만 옛 정취로 풍경의 애환을 우는 절터에

마침내 새 날의 태양이 뚝뚝 동해를 흘릴 때

백운화상이 흘렸을 불경 대신 주조의 쇠물이 흘렸다

푸른 대지의 장소로 탄생한 한줄기 직지의 빛이

깊고 깊은 토층의 암흑 속에서 증언의 눈을 뜬다

30. 보라, 이것이 직지니라

최 효 립

이 어찌 한낱 돌과 견주라
영원히 죽지 않는 흑표범
섬세한 경한(景閑)의 손길과 만나
밝게 빛나는 검은 별이 된 것을

어찌 정각(正覺)에 가치를 매기랴
위대한 깨달음의 기록
수백 년의 세월과 만나
비로소 뚜렷한 종이가 된 것을

황금보다 가치 있는 금속
만월의 비치우는 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거늘
당신은 어째서 먼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가

과거에 빛나던 금속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구나

이 어찌 누가 알지 못하랴
어느 지석(紙石)이 이를 대체하며
대체 무엇과 만나며
어떤 것이 되겠는가

어찌 영원에 시간을 재랴
타인의 시간이 무슨 의미이며
빼앗긴 진실이 어찌 무의미하며
너는 누구를 만나려 하는가

불꽃의 열정과 하나 된 금속
붉은 꽃의 고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거늘
당신은 어째서 우월함을 비교하려 하는가

가까이서 보라
더 자세히 보라
그래야 깨닫게 될지니

어찌 무엇으로 빗대랴
직지심체요절 그 자체
대한민국의 마음과 만나
이미 대한의 일부가 된 것을

보라, 이것이 직지니라

31. 직지(直指) 그대 향한 사모

임 준 빈

지난날들은 너무 길었습니다.

산 위에 산 하나 있고
강 아래 강 하나 흘렀습니다.

꽃다운 당신의 체취는
흥덕사 뜰 안에 핀 연꽃 위에 얹어 놓고
물그림자 되어 떠나갔습니다.

꽃비보다 은은한 그 몸짓은
짧은 여행이 아닌
아주 긴 작별의 시작이었습니다.

뜻 모를 약속 하나 남겨둔 채
떠날 것이 두려워 미리 보내는 슬픔처럼
겹겹한 산기슭을 휘돌아 날아갔습니다.

우리들은 그랬습니다.
진실한 이별 아닌 유혹의 사슬에 가려
어린이의 철없는 눈망울로
당신의 가는 길을 바보처럼 인정했습니다.
이제 와 무심의 강물 소리 들으며 깨우칩니다.

유혹의 입맞춤 낙엽보다 가벼운 거래의 수치심
찰라보다 더 짧은 삶 사위어
푸른 하늘은 절망의 옷으로 갈아입고
당신은 이미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음을
느지막이 꿈결처럼 알았습니다.

역겹의 인연 갈기갈기 찢어놓은 채
떠나가신 당신의 여운 앞에
설운 가슴 쓸어내려 참회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농익은 그리움 밤하늘에 박힌 큰 별 하나가
소리 내어 누군가를 부릅니다.

해후의 그날을 위해
달빛이 꺾 찬란한 별빛을 그려
밤바다에 아롱지는 금모래빛 사리를 모아
시든 별들을 깨웁니다.

32. 그리워 그리워서 옵니다

권오중

풍경이 흥덕사에서 옵니다
댕강댕강
직지가 그리워 옵니다

역새가 뜨락에서 옵니다
하들하들
직지가 그리워 옵니다

두견이 나무에서 옵니다
직지가 그리워
애가 타게 옵니다

그리움에 목말라
그리움을 꼬옥 껴안고
세월의 강을 거슬러
연어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밤이 지새도록
못다 한 얘기 나누며
설핏한 새벽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워 그리워서
귀뚜라미처럼 옵니다
하도 그리워
매미처럼 옵니다

그리움이 쌓여 별이 되고
그리움에 사무쳐 꽃이 됩니다
별은 하늘을 그리워하고
꽃은 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을 어찌지 못해
철썩철썩 파도가 됩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됩니다

33. 직지, 리진(李眞)에 대하여

임 준 빈

어느 몹시 바람 불어와
그 바람벽에 잠시 몸을 뉘던 날
한 남자의 낫선 품에 안겨
이곳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품에 안겨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에 쥘려 있는 책갈피 속 꽃잎 한 장으로 왔지요.
우주를 건너
온 생애를 걸고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민족혼이 숨 쉬는 책을 지키기 위해
고국의 땅 냄새를 간직하기 위해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시들 뿐 운명에 숙연할 뿐입니다.
한지로 에둘러진 제 몸 안엔 겹겹이 쌓인 목향이 가득합니다.
한지(韓紙)의 수명이 팔천 년이라 하였거늘
제 생명의 끈도 질깁니다.

직지(直指), 그대가 기쁘면 제 얼굴엔 연꽃이 피고
그대가 힘들면 제 몸도 지쳐 그의 화석이 됩니다.

아, 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고요한 민족혼의 숨결로
온 세계를 휘휘 떠돌며 나아갑니다.

먼 훗날 역사의 부름 받아
우리가 고국의 깃발을 높이 높이 펴려일 때
그대는 그 깃발을 짚어낸 활자장
저는 그 안에 어리는 승리의 글씨로 다시 태어납니다.

차라리 본향 땅
어느 바윗돌에 하르르 스러지는 낙화이려거나
기필코 피어나고야 마는
부활의 꽃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34. 직지, 망향가(望鄉歌)

임 준 빈

잃어버린 추억
창자 쥐어짜는 하늘에
검은 공기들이 푸드득 날아간다.

감춰 둔 희망
그래도 새들의 곡조는 높아
푸른 공기들이 부리 툽에서 새어 나온다.
잃는다는 것은 새로 얻는다는 것
비움의 미학이다.

낙엽이 지면 나무들은
안으로 안으로 더 강한 의지가 굳고
찬 서리 내린 들국화는 내일의 소망을 위해
마지막 향기를 다듬는다.

어머니 손길 같은 고국
실개천보다 너른 냇물
백운화상의 혼으로 깃드는 무심천엔
지금도 노을은 붉게 타오르고 있겠지.

내가 떠나오던 날, 흙탕물을 일구며
이리저리 자발없이 나뒹굴던 어린 물고기들
저항의 몸짓들이 지금도 생생하여
두고 온 사랑 애달프다.

안 볼 듯이 울어 치던
흥덕사 추녀 밑 풍경마저 눈물 감추었으련만
이곳에 와 애써 지은 저 하늘별들은
왜 이리 볼수록 총총한가, 분명한가!
그리움 사무칠 때마다 쏘아 올린 나의 기도
녹슬지 않는 별처럼 천년의 열매로 아롱진다.

푸른 하늘아 푸른 별들아
저 구름에 비껴 마음껏 지출대는 민족의 숨결아
봄이 오면 꽃은 여전히 따라오고
파릇한 새싹을 밀어 올리듯이
이 추운 겨울은 끝없는 겨울이 아니다.

나의 사랑 장독 뒤란
시령 밑 울 엄니 살던 곳
고국(古國)의 그대 있음에.

35. 하이얀 벚꽃세상

장 병 학

동살 품어내는 하이얀 벚꽃세상
돌돌돌 물살 날리는 무심천
노오란 미소 안겨주는 개나리꽃
님이 오시기 참 좋은 봄날입니다.

금수강산 당신의 나라처럼
그 먼 이국땅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 왔나요
당신의 위상이 온 산하로 번지나요?

그대 닮은 맑은 향기 흠날리며
아름다운 자태만이 뒤척이는 훈훈한 봄날
그곳에도 당신을 우리처럼 사랑하나요.

오오, 그립고 뵈고 싶은 직지(直指)!
백옥 같은 그대의 고귀한 자태
사랑과 용서, 소망과 그리움으로
점철된 따뜻한 봄날이 올거예요.

노오란 개나리꽃이 덩실덩실
목련꽃 모란꽃도 병글병글
그대 몸짓으로 꽃망울마다 웃음 주며
희망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꽃무늬 세상
꿈과 그리움을 품어내는 빛 고운 무심천
오늘도 그대 생각하며 무심히 흐릅니다.

그대가 희망의 꽃으로 달려오시는 날
가늠 길 없는 광명의 그날을 생각하면
이내 마음은 그리움과 기쁨의 눈물만이
내 가슴에 한줌씩 똑똑 녹아내립니다.

총알 같은 세월의 천착 속에
꽃물결 세상으로 물든 청주고을
오늘도 자랑스런 그대만을 그리며
하이얀 벚꽃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36. 섬광의 꽃사슴

장 병 학

허공을 가르는 무언의 손짓
창백한 낮달
그리움만 물고 옵니다.

푸른빛으로 휘감은
마음의 바다 하얀 포말들
우주가 왈각 토해낸 한숨 소리
내 마음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먼 태고의 비춧빛 하늘 아래
푸른 숨결이 흐르지 못하는 망망대해
한 축의 조각배도 띄울 수 없고
갈매기만 슬피 울어대는 곡절마저 숨은 바다.

머언 창공으로 휘얼혈
두견새처럼 정든 고향 잃고
나의 뿌리 고국 떠나보낸
아슴아슴 바다에 잠긴 듯

나의 숨 가쁨과 맥박소리
두둥실 떠나가는 흰 구름에
희망찬 날갯짓이 되고 싶습니다.

고독의 피울음 소리
바닥까지 가보지 않고서야 (연 계속)

어찌 그대 아린 가슴 속을 헤아리겠는가.

나는 길 잃은 나그네
들숨 날숨 없는 방랑길에서
파아란 하늘만 바라보며
고국땅 났을 날만을 목 놓아 기다립니다.

프랑스 미테랑 국립도서관
한 맏힌 망부석 앞에서
슬픔을 토해내는 외로운 삶의 직지
나의 본향 대한민국 청주를 향해
한 폭의 수채화에 그리움만 쌓이는
낮빛 찬 섬광의 꽃사슴입니다.

37. 직지의 노래

이 혜 정

청주목 흥덕사의 풍경소리 들려오면
무심천 흐르는 물결 위에
백운화상의 일갈성(一喝聲)이 운슬로 반짝인다

사람의 마음 바로 보라는 직지의 음성,
너 자신을 바로 알라는 직지의 가르침,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로 새긴 빛나는 계송으로
마음을 밝히고 지혜의 문을 두드린다.

고려 말 백운화상의 깊은 뜻 받들어
석찬과 달잠, 묘덕스님이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
인류문명의 등불을 밝히고
반만년 우리 민족의 우수성 세계만방에 떨치셨네.

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빛나는 직지여,
수천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묵향(墨香)서린 마음 길에
세계인의 무지(無知)를 일깨운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여!

그대는 진정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른 정신의 모체(母體),
우리민족의 자랑이요 세계인의 보물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

그 이름 역사 위에 찬란히 빛나리라.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영원토록 새기리라.

38. 흥덕사

임 진 이

유유히 흐르는 무심천은 알고 있는가
맑디맑은 축복의 땅 청주의 저 하늘은 보았음이다.
흥덕사 고고성을 기억하리로다.
비천의 형상으로 태동을 보았음이다.

그대는 듣고 있는가
종소리로 전해오는 큰 스님의 말씀을
곧은 길 걷어 바른 것만 보기를
수천 번 빌고 빌었을 그 정성

산고를 겪으며 혼신을 다한 자식
정화수 떠 놓고 무릎 꿇어 합장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
돌아오는 나의 분신이여

흥덕사의 위상으로 직지의 위상으로
이제는 돌아와 잠들었던 세월만큼
연등을 밝히듯 무심한 인간사
직지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선인들의 그 숨소리마저 가르침으로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어지러운 사바세계 이 땅 구석구석을
고루고루 밝히게 하소서.

39. 직지의 본향 청주

이양우

온갖 꽃은 만발하여 산에 두루 가득하고
닥나무 뿌리가 서리어 이어가는 고장
마음 꽃 활짝 피워 금속활자 열매 붉게 익어
천년 한지에 수놓은 찬란한 문화의 등불

우암산 맑은 바람에 실린 따스한 마음
무심의 물이 유유히 흐르는 무심천
바로 가리키며 지켜보는 텅 빈 마음의 충만
흰 구름 맑은 하늘 그만큼 하도다

무명을 깨우는 희망의 밝은 빛이 머물고
만 리를 울려 퍼지는 청아한 청동 금구의 흥덕사
직지인심 견성성불 깨달음의 길 찾는 인연
사방이 탁 터진 물 한 그릇을 마중물로 채운다

목판 시대를 지나 시간과 공간을 이어가며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황금색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된 눈부신 자부심

꺼지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문화유산
불조 가르침이 글자로 새겨진 기록문화 역사여
금빛 씨앗의 송고한 금속활자 인쇄술
새롭게 태어나는 21세기 빛나는 디지털 세계여

혈맥과 혈맥이 서로 통하여 활력이 넘치고
지구촌 가족의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직지와 함께 세계의 중심에 선 청주
온누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날이 달라지리

문화의 향기 살아 숨 쉬는 직지의 본향 청주

40. 직지, 날다

박기준

그곳에 가면 무수한 이야기가 녹아 있다

별꿀집 찌꺼기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침햇살이 스님 위에 앉아 미소 짓고
마당 쓸던 붓으로 쓴 글씨
밀랍판 위에 붙여 만든 어미자

어미자가 밀랍봉과 미래 약속하며 만든 가지쇠로
놀란 흙 부어 굳힌 자리
태양이 쏟아버린 열이 밀랍 녹여 소낙비 같은 섯물 거푸집 만든다
거북등처럼 마른 거푸집에 용액이 들어간다
섯물 뒤틀림에 비로소 만들어진 활자

알에서 나와 하나의 세계 깨트린 것처럼
거푸집 부수고 태어난 아기 금속활자
머리에 지혜의 먹물 칠하니
쏟아지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안개는 사라지고
새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자리
나무는 바람이 흔드는가 마음이 나무를 흔드는가
계송 속을 걷는 경한스님 목탁 소리 자박자박

거울 속에 있는 모습 지울 수 있을까

밤새워 닦아도 변치 않는 모습
무심으로 화두 품은 지 천년
깨달음만 남은 흥덕사 석가탑, 홀로

땅바닥 기는 애벌레에게 고개 들어
하늘을 보게 하려 끊임없는 자비의 날갯짓

백목련 꽃망울이 터진 흥덕사
느티나무에 앉은 까치는 대웅전 향해
백팔배 하고 초정약수로 떠난다

41. 양병산 소고(小考)

김영배

거기 있지만 지나치기도 한 곳
실체보다도 그 기슭이 더 크고
별호가 많아 이채롭기도 한 산

정상 주변에 모여든 바위들이
병사들 포복 훈련 장면 같아
жат아든 힘 한껏 솟구치게 하네

청주의 중심부로 진화한 진산

우암산과 그 산하 안구에 담고
무심천 마음 되어 흘렀으리라

공사 현장서 눈뜬 쇠북조각*이
고대하던 흥덕사 문 열었을 때
먼저 기뻐한 이들은 그 누구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금속활자 직지
이역만리 납신 것은 숙명이었던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빈자리가 커
산기슭 서성이다 그의 품에 안겼네

흥덕사를 가슴에 안아 거두면서
역사의 흐름에 담담했던 그대여
다시 옷깃 여미고 미래를 지향하자

*쇠북조각: 1985년에 운천동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흥덕사 이름이 새겨진
쇠북조각이 발견됨(청주대학교 박물관)

42. 직지의 노래

이영미

흥덕사 이끼 낀 돌계단을 거쳐
굽이굽이 시간이 절기의 능선을 지나올 때
역사의 부침을 고스란히 껴안은 활자 사이
범접할 수 없는 고원(古園)의 숨결이
상처의 갈피를 쥐고 시대를 관통한다

행간마다 선의 구도적 문체를 새겨 담고서
한 세대 두 세대
화음의 잉크로 찍어낸 서체가 시간을 넘나들며
고고한 역사의 이력을 읊어주는 직지심체요절

범음구(梵音具) 울리는 창살문 너머
시간의 인내와 범종소리가 사유의 궤도를 거쳐
편철해 놓은 글귀를 풀어 읽으면
머나 먼 과거에서 발효된 타종소리가
진폭을 키우며 울려퍼진다

날글자의 굴곡따라 세월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시간의 강 건너 마주치는 견고한 주조의 세상,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시간차의 울림이 공명하는데

눈과 마음이 합장하여 무심선(無心禪)에 이르는
불조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등불 밝혀진 고려의 법구가 양분을 더해
불전의 표본을 풀어내 줄 때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활자의 다리에서
지난날의 법음 발화한 거대한 꽃봉우리
선의 요체 직지의 노래가,
순례의 등성이에서 만개한 꽃잎 되어
갈피마다 풍성한 음계를 쏟아낸다

43. 직지, 글빛을 고르다

최형만

어미자 새기고 밀랍을 녹여내느라
원석의 검은 머리칼 하얗게 세었다
씻물을 먹어야 말을 하는 활자
빛을 섬겨온 당신의 시간이다

바람 한 줄 없는 열기에도
한낮을 견뎌온 당신
청동의 날개 활자를 자르는 동안에도
어긋난 틈 하나 없더니
거푸집에 든 속말까지 따라온다

바닥까지 고이는 양각의 글자들
스무날을 반그늘에 풍경으로 펼쳐면
푸른 말을 적어간 계절도 닳아갔을까
서걱대는 소리는 어찌나 깊은지
그런 날엔 묵향도 먹빛이었을 게다

어린 백성이 문맹의 밤을 지날 때도
온통 잿빛의 언어를 새기느라
움푹한 여백으로 빛을 고르는 당신
가지쇠 붙여간 숨결을 따라가면
직지가 빚어낸 빛깔마다 불성이 걸린다

그림자 붉은 저녁이 흘러들어도
진구리의 안쪽까지 활자를 맞추는 손
마음의 본성도 부처의 말씀을 잇는 일일까
찍어낸 글자마다 글빛이 자란다

44. 첫 활자의 탄생

이혜경

맘디뎀은 길을 따라
맘디뎀은 술을 따른
잔 안을 깊이 들여다보니
온 세상을 담고 있더라.

시뻘건 울음소리를 따라
첫 활자의 탄생을 엿보니
가장 맘디뎀은 곳에서
자신을 알리고 있더라.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남김, 기록.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그 흙은 다시 활자로 태어나니
또한 그 기록은 영원토록 남으니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던가.

손가락을 곧게 펴
마음에 바르게 새겨보는 것이다.
직지를

가슴을 곧게 펴
심장에 맑게 새겨놓는 것이다.
청주를

후손들을 위한 직지를 이어받은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위한 직진을 하는 것이다.

45. 직지를 알리는 그대여!

도선희

직지를 널리 알리는 그대는
청정한 산사의 하루를 여는 도량석(道場釋) 같고
새벽하늘을 여는 반짝이는 샛별이어라

백운화상 고운 눈매에 무심(無心)의
미소가 돌고
시주 비구니 묘덕의 숭고한 뜻을 담아
석찬과 달잡의 금속활자 다듬는 소리가
독경처럼 들리는 듯하구나

직지를 알리는 그대여!
직지의 가르침을 흥덕사 무심천에서 발원하여
청양의 장곡사와 여주 취암사
그리고 정읍의 백운마을을 지나
대한민국 동서남북에 울려 퍼져라

실크로드를 지나 바다 건너
저 구텐베르크의 독일을 거쳐
직지가 머무는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까지
메아리로 울려 아름다운 시
한 소절로 회향(廻向)하소서

직지여 전국으로
직지여 세계로!
직지여 우주로!

찬란한 세계 문화의 마중물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깊은 올림의 전령(傳令)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위대한 직지여!
직지의 본향인 빛나는 청주여!

세상 끝까지 직지를 알리는 사명감으로 길이 빛나리

46. 직지, 시간의 문을 열다

강창호

금속 활자에 새겨진 시간의 기억
묵묵히 걸어온 역사의 긴 여정
그 첫걸음이 직지의 이름으로 남았네
활자 하나하나에 담긴 지혜의 무게
수많은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 빛나는 길

종이 위에 새겨진 그날의 숨결
활자의 차가움 속에서 피어난 따스한 온기
청주의 땅에서 시작된 지식의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의 손안에서 빛을 발하네
잊혀진 역사의 저편에서
다시금 깨어난 직지의 숨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직지의 지혜는 영원히 빛나리라
한 글자, 한 문장이 모여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되고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네

직지여, 너의 이름은 시간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 주었네
그 빛나는 글자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그 지혜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리라
어둠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직지의 빛은 꺼지지 않으리니
우리는 그 빛을 따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리라

47. 직지, 불심을 새기다

유지호

어둠을 견뎌낸 불심, 직지를 낳았다
판형 속에서 시뻘건 쇳물이 끓어오를 때
엄속하리만치 경건한 독경소리
무심선을 깨우친 백운화상의 가르침을
석찬과 달잠의 꺾이지 않는 불심으로
거침없이 써 내려간
흥덕사는 인류문명의 발원지였다
중생들에게 전하려던 불도는
쉽사리 해독되지 않는 암호처럼
짧은 생각 길을 잃고
황홀했던 역사가 소란으로 야위어가는
순간, 멀리 이역 땅에 갇혀버린 직지가
창문을 휘갈기며 떨어지는
빗줄기의 활강에 놀라 잠을 깨면
비명으로 달려와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
숨결 닿는 곳마다 고향산천 그리워
저녁노을 붙들고 묵비처럼 침묵하며 흐느낄 때
여백으로 남은 무수한 말줄임표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불면의 직지를 펼쳐보면
이마에 피멍이 들도록 번득이는 예지로
평정을 잃지 않고 한 획 한 획 새겨 넣던
부처의 마음이 허기진 중생들 앞길을 호위하며
다시 피어 불처럼 솟구치는 직지의 힘이다

48. 흥덕사에 피는 꽃

정연숙

무심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타고 벚꽃잎 흥덕사에 가닿는다

풍경소리 푸르게 흔들리고
희미한 달빛 아래 밤마다
쇳물을 다듬어
금속활자 꽃피우는 소리

중생을 구원하고자 무등의 세상 꿈꾸며
청아한 연꽃 같은 자비로운 미소로
일체유심조의 마음으로
참회의 등불 하나 켜 들고
참다운 해탈을 꿈꾼다

멀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우리의 소중한 유산 직지
직지의 산실 흥덕사에 직지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 혼은 흥덕사를 떠나지 못하고
활활 불타고 있다

내 몸의 뼈를 깎이고 녹여
달빛 조용히 내려앉아 우주를 껴안는다
우리가 살아갈 역겁의 시간 짓는다

49. 직지 하권

최병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읽고 또 읽으며 깨달음의 가르침
가슴에 새기며 참아온 세월
39장 청주목외 흥덕사 떠오를 때면
행여 잊혀질라 두려운 마음

흥덕사 앞마당에 바람 불면
먼 나라 프랑스에서
고향땅 밟아보고 싶은 마음
실어 보낸 줄 아세요

흥덕사 지붕 위로 빗물 흐르면
프랑스 국립 도서관
흘로된 외로움에
젖어드는 눈물인 줄 아세요

흥덕사 뒷마당에 하얀 눈 날리면
동양문헌실 유리막
오도 가도 못하는 차디찬
서글픔의 한이 흩날리는 줄 아세요

흥덕사 어우러진 산봉우리
순백의 한지 위에 활자로 피어난 꽃
맑고 푸르른 내 고향
직지 상권 만나 행복의 이야기꽃 피우고 싶은 (연 계속)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간절한 소망을
오늘도 변함없이 기억해 주세요

50. 가을, 흥덕사에 머물다

금성윤

단풍 물든 흥덕사 마당에
역사의 숨결이 고요히 내려앉다
은행나무 황금빛 잎새가 흩날리며
고즈넉한 절 마당을 수놓는다

붉은 잎 바람에 춤추는 사이
풍경소리 맑게 울리면
육백 년 세월 견딘 절 마루에
가을 햇살 따스하게 스며들고

처마 끝 풍경에 걸린 가을 하늘
쪽빛 맑음에 마음도 맑아지면
꽃은 지고 연잎만 남은 연못가에
노승의 염불 소리 잔잔히 울리고

누각 위 새소리에 깃든 세월
직지의 숨결은 아직도 생생한데
가을바람 휘휘 불어 지나가며
옛 이야기 속살거리는 듯

낙엽을 밟는 서로의 발걸음
찰나와 영원의 세월 맞닿아
분분한 낙화가 흩날리는 사이
그대의 번뇌도 함께 떨어진다

51. 직지라는 별

김영옥

보이나요,
먹먹한 그리움이 응어리진 벼루 같은 밤

붉은 실 세 번 꼬아
하늘과 땅의 인연을 묶어주면
별자리 거꾸집마다 별빛 웅알이들도
고귀한 책으로 태어날 운명이었죠

천 년 전
내 이마 가까이로 다가오려다
흥덕사 뒤란으로 떨어진 한 쌍의 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다듬어
드높은 뜻을 헤아린 달잡과 석찬의 마음
그리움의 이름을 새긴 가락지로 환생했을까
오늘도 모래 무덤을 뒤적이는
강물이 차갑습니다

그 누가 무심히 허공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잘라
먼 나라 지하 수장고에
가둬놓았을까요

도서번호 109번*,
무슨 수인의 번호인 냥
수라에 억류된 신분으로 흐려진 별빛

백운화상의 혼이 담긴 그 별의 심장은
부처님의 인상(印相)을 본뜬
이심방 이심실의 전법륜인(轉法輪印)

쌍가락지 같은 빛의 광배는
별이 빛나는 고희의 작품에서도
앵발리드의 과녁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센느 강물로
화살촉 같은 별뿔별이 떨어지는 밤, 나는 천 년을 걸어
사바(娑婆)의 절귀 같은 에펠탑을 마주 보았습니다

흥덕사에서 처음 맡은
씻내가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109번 -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 리
슐리 도서관에 기증된 『직지』의 기증번호는 9832, 도서번호는 109번인데, 국
가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문헌실 수장고
에 보관 중이다.

*앵발리드 - 2024년 하계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린 경기장의 이름, 근처에 센
느 강이 흐르고 강변을 따라 걸어가면 파리 국립도서관까지 한 시간 안에 달
을 수 있다.

52. 발신: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 박병선을 기억하며

박장흥

나는 이름 없는 먼지였습니다.
거대한 한자(漢字)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파리의 메마른 숨결이 내 장정(裝幀)을 잡아먹고,
서늘한 시간이 육백 년 전 청주에서 온
장인의 땀방울을 천천히 지워갈 때,
나는 그저 속절없이 잊혀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에 묻힌 내 존재를 비추는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낮선 시간 속에서 나타난 동향(同鄉)의 손길이
쌓이고 쌓인 먼지 위를 고요히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닿는 순간,
잊혀졌던 먹빛은 오계리(梧溪里) 대숲의
바람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최초'라 불렀지만,
그 빛은 내게 가장 눈부신 감옥이 되었습니다.
나를 비추는 조명이 선명해질수록,
유리창 너머 당신의 눈빛은 흐려졌고
나의 글자가 뚜렷해질수록
당신의 머리칼엔 서리가 쌓였습니다. (연 바깥)

당신의 뒷모습이 흐려져 가는 것을
나는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의 강을 건넌 후,
나는 오지 않은 답장을 기다리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빛 속에 갇혀,
돌아올 수 없는 당신과
돌아가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이제 나는 여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묵서(墨書)가 되어
밤마다 셴 강의 파문 위로
무심천의 물소리를 조용히 띄워 보냅니다.

53. 뜨거운 활자

길덕호

불의 글자다.
차가운 쇠덩이에서 뜨거운 불의 문장으로
깨달음의 무게가 심장을 짓눌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사물의 진수는 생명수가 되어 혈관으로 흐르고
정리가 된 자그마한 집이라길래
가볍게 들어왔다가 오래된 가부좌를 틀고 있다.
누구는 최고라고 하고 누구는 최초라고 한다.
직지심체 금속활자
두 몸인 듯 한 몸인 기록과 기억의 몸체
흥덕사의 용광로
흰구름 이고 좌선하던 노승은 불의 땀을 흘린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채록하여 쇠물을 녹인다.
땀이 불 위에 떨어지고 불은 활자를 만든다.
삶과 죽음은 모두 마음에 있는 것
존재와 허무 사이에 타오르는 각성의 불기둥
매번 다른 씨앗으로 번역되는 정갈한 말씀
오욕칠정의 고리를 꺾고 시지푸스의 언덕을 오른다.
시커먼 구정물이 내 안에 흐르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 줄기 맑은 물
청수가 청수가 되어 정화수의 지경을 넓힌다.
지극해야만 갈 수 있다는 열반의 세계
간절한 기도가 불의 심지를 높이고
심장 한 켠 뜨거운 활자가 온몸을 불사른다

54. 나는 활자가 되고 싶었다

송혜림

나는 활자가 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뜨거운 납 속에서
작고 단단한 진심이 되고 싶었다

불꽃 아래 쏟아지는 땀방울,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판의 비명
그러나 나는
반복된 망치질에 맞춰 숨을 들이마셨다

검은 먹은 나를 덮쳤고
흰 장은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나는 이름도 없이
누군가의 진실이 되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은
불태워진 서책,
검열당한 언어,
지워진 신념 사이에
묵묵히 놓여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청주의 바람 속에서
누군가 나를 펼쳐 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누구도
나를 불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금속이다
나는 직지다

55. 직지 자음을 긋는 바람

권괴순

양병산 언덕, 소나무 사이로
맑게 깨어나는 숨결을 따라 걷는다
투명한 기압의 손끝에서
시간의 진동이 번져 나온다

목선 낫달의 글 읽는 소리
붉은 줄기 사이를 더듬는 문지기
숨겨진 주파수를 찾아 나선다

가지쇠 위에 핀 활자 하나
고요를 건너 수간의 리듬을 타이프치고
묵향이 번역한 울림이 나를 이끈다

솔잎을 타고 흐르는 바람
흥덕사 용마루를 따라 긋는 자음의 손놀림
말보다 먼저 온 전율이
손바닥에 눌러 새겨진다

청록빛으로 번지는 금구 소리
끝내 삼키지 못한 어깨가 들썩이고
애써 감추던 속내를
파란 물 똑똑 흘리던 센강의 바람이 알아챘을까

한밤을 밀쳐낸 새벽이
흥덕사 치미에 걸릴 때
다섯 구멍 붉은 실로 꿰어진 (연 계속)

백운화상의 숨결, 초록불조의 한 호흡
이문자설*
말 없는 떨림이
나의 맥박을 깨운다

*이문자설(離文字說): 언어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의 철학.

56. 직지심경, 그 울림

박봉철

직지는 나무의 시간, 바람의 시간
그 위에 끊임없이 울린다
소리 없이 퍼지는 물결처럼
한 줄씩 세상을 읽는다

돌을 깨며, 땅을 타고
하늘을 넘어서 늘어나는 길을 따라
그 길 위에서 몇 번이고 뭉개지고 짓누르며 일어선다
목판에 새겨진 그 세상처럼
새겨진 글자는 흐르고, 부서지고
온 누리에 뻗어 박힌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무상' 너머
흙 뿌리와 바람의 만삭이다
피처럼 뜨거운 그 의미들을 두드리는데
직지,
나무 위에 새겨진 부처의 말씀

구름과 먼지, 바람의 속도에
가슴이 떨린다
직지, 그 한 자가 새겨질 때
구석구석 살갓이 아려온다
그 무게를
빛으로, 음으로, 숨결로 (연 계속)

모든 시간의 틈새에서

가마솥 무르팍에서
살을 태운 훈이
새상 끄트머리 진리까지 열꽃으로 만개한다

57. 우주를 깨운 직지

박용섭

붉은 자국 흉터의 살갓
세상을 뒤집었다
비스듬히 기우러 버려진 그늘
울음의 뼈에는
까마귀 발자국 같은 글 찍혀있다
어느 왕조의 애락이 촘촘히 구음을 구걸하여
사금파리 씹는 소리 들숨 날숨
인공의 풀무 앞
활자체보다 더 선명하게 새겨진
단단히 묶여 있던 환호성 버르고 있다
불가마 앞 모랫돌 위에서
꿈의 화마 무쇠 안으로 몰아넣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무한의 담금질
쇠스랑 날 버르고
땅을 다스리는 녹슨 호미 날 팽이보다
더 붉게 깊은 뜻 품었다
지금 어디서 잠들고 있는가
청주는 산고의 고통을 참아낸 어머니 같은 흥덕사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천삼백칠십칠 년
문명을 꿈과 열정으로 바꾼 세계사 기록
직지심체요절
붉은 눈 부릅뜨고 있을 속뼈를 세운 금속활자
마디마디 불꽃 자국 시간의 빈 수레가
지하에서 잠들 수 없어
나는 선명한 울음 채질하며 오늘도 돌고 있다

58. 직지, 불에서 숨을 연다

성백광

나는 태어나기 전 불 속에서
형체도 없이 검은 점 하나로 숨 쉬며
세상의 맨 처음을 기다렸다
내 첫 살은 쇠물이었다
말이 되지 못한 시간들이
뜨거운 침묵으로 쌓이던 날
장인은 나를 품에 안고
생명을 깎듯 활자를 다듬었다

지문처럼 미세한 음각마다
사유의 핏물이 흐르고 식지 않은
열기 속에 나는 살과 뼈를 얻었다
종이는 나의 피부였다
벗은 없었다
내게 필요한 건 지워지지 않는 의지
버려지지 않을 육체였다

나는 찍히며 자랐다
어떤 문장은 폐가 되고 심장이 되어
서로 다른 활자들이 포개질 때마다
나는 더 복잡한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말의 육신이 형체를 갖고
인류의 기억이 불멸을 얻은 순간

불은 파괴가 아니라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단절이 아닌 연결이 되어 (연 계속)

수행승의 손길로 문장이 숨을 고르며
목판의 굴레를 넘어 활자의 씨앗으로
시간이라는 경전 위에 뿌려졌다

59. 침묵의 문장

이영미

한 권의 책 속에 펼쳐진 창대한 힘,
미지의 길에 찍었던 첫 발자국이
묵묵히 디지털의 세상을 건넌다

그 옛날 처마 밑 풍경소리마저
미래의 기적으로 번져가던 시간,
흥덕사 담장을 넘는 주조의 소리
메아리를 울렸다

수도승의 땀과 고뇌가
시간의 이끼 사이에서 싹을 틔운
활자의 씨앗들

진리의 빛을 담아
시간의 굴곡에도 퇴색없이
책의 갈피마다 그 무게 짚 수 없는
깊은 자취로

활자와 활자 사이,
오랜 법의 문구가 숨결을 발하며
어둠의 길 위에 등불을 놓는다

되새기듯 조용히 첫 출발을 떠올려 보면
문장 하나 하나
쇠의 숨으로 눌러 쓴 진실이
무덤덤한 영혼을 일깨운다

그날을 기억하는 바람과
시간조차 숨죽인 채 응시하던
흥덕사의 뜰 안에서
금속이 첫 호흡을 뿜어
종이 위에 꺾적을 남긴 활자의 흔

천 년을 걸어와
디지털 세상 사이에서
의연히 말을 걸어온다

60. 직지, 철의 영혼 깨어나다

장동휘

한때 그는 쇠로 만든 벌레,
종이 위를 기어다니며 말을 심었다
허가 닳도록 침묵을 외우던 시대에
쇠로 된 말들이 불꽃 속에서 태어났다

직지는 사원보다 오래 기도했다
활자란 제 몸 달구어 새겨낸 쇠붙이의 영혼들
그렇게 한 자 한 자 불멸을 찍어가던 쇠소리
손바닥 만한 경전을 들고 행진했다

종이는 꿈을 꾸지 않지만
활자는 꿈을 박제한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덮어두고
또 누군가는 불꽃으로 태운 그 말들
지금도 활자는 잿더미 속에서 비상을 꿈꾼다

구텐베르크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어른거리던 건 고려의 얼굴
활자는 날아올라 동으로 동으로
신비한 동방의 나라에서 먼저 깨어났다

시간은 종이보다 쉽게 찢어지지만
직지는 소멸하지 않는 기억의 갑옷
그리하여, 금속의 비늘을 두른 불멸의 말들, 직지
들리지 않는 천둥소리

61. 달빛 속에 머문 직지

진장명

흥덕사 달빛 아래 숨죽이는
먼 우주를 돌고 돌아온 빛은
금속활자로 피어오르던
희망의 꽃 직지다

천년 세월 살아 숨 쉬다
돌로 나뉜 금속활자
옛 선인의 혼이 깃든 문화유산
프랑스 유네스코에
세계의 품격으로 오르다

천년의 꿈을 간직한
금빛 햇살 머금고
유유히 흐르는 청주의 무심천
오색 바람 따라 빛나는
맑은 바람 속에 품은 달빛 한 소절
그윽한 시향 속에 요동친다

흥덕사 앞마당에 달빛이 물들면
무신 무념의 깨달음 석가 마음
먼 타국 땅 프랑스에서
새롭게 피어난
직지심체요절이여

한 그루 나무처럼
고대에서 현대사로 펼쳐는 변천사
찬란하게 빛이 된
백운화상의 땀과 정성
다시 세계 속에 홀로선 직지

62. 직지의 혼(魂)

임준빈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흐르는 지혜의 강
흥덕사 푸른 숲 너머로 피어오르는
백운화상의 깊은 깨달음이 고려 청주목에서
탄생하다

마음을 곧바로 비추어
그 본성을 보게 하는 직지심(直指心)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롱한 등불

차가운 금속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긴
간절한 염원과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일깨우는
백운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 우리의 가슴을 울리네

그 혼이 깃든 활자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마주하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지혜의 길을 찾네

이 영원한 빛을 품고, 우리는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리라
쇠 속에 새긴 한 글자마다 활자장의 땀방울이 맺히고
시대를 뛰어넘는 의지의 기록,

내 마음 나를 만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나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네

나는 날개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왔나니
가고자 해도 갈 곳 없고
마음도 없고 얻을 것 없음에
얻는다 말하면 법이 아니네

씨앗 속에 꽃 과일, 잎이 있듯
원자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원자가 있으며
나는 꽃이요 과일이요
하늘을 쳐다보는 쓸쓸한 잎이거늘,

나는 날개처럼 가벼운 마음이어도
마음은 형상이 없고 모든 형상들은 삶이 없네

그 마음의 고향이
직지심체 견성성불
직지심체 견성성불이라네